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23회, 충실한 왕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23회, 신실한 왕입니다.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유월절을 기념하며 히스기야를 떠났는데,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하여 베델과 단의 신당들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쪽 지파의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도록 자유롭게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정치적 분열에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초청을 가지고 나갔고, 그 초청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유월절의 구속과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시내 산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을 것을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히스기야 통치하에 유월절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구속받은 백성으로 하나가 되는 이 갱신은 성전 자체의 회복과 대적들에게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신실함으로 이어지며, 여기에서 연대기 기자가 이야기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는 히스기야를 가장 신실한 왕, 그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 더 신실한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18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그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 더 신실해야 한다는 정말 놀라운 진술입니다. 물론 열왕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매우 불충신했고 그 결과 유다 자체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대기 기자는 유월절에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회복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활동. 그래서 역대기가 우리에게 들려줄 히스기야 이야기의 다음 측면은 그의 성전 회복이다.

히스기야는 이전에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방식으로 유월절을 회복하였고, 이제는 그 이전의 어떤 왕도 행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솔로몬 치하에서 대표해야 했던 성전을 실제로 재현하도록 성전을 회복합니다. . 다윗과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성전에 대한 모든 헌금을 담당하고, 헌금에 대한 모든 관리를 담당하며, 그런 다음 우리는 성전 전체가 복원된 방식에 대한 요약을 얻습니다. 이제 이 장을 읽으면서 솔로몬 성전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한 일은 재료를 모으는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레위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와 제사장으로 나누어 솔로몬이 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한 것인데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조직이 있었느니라 지원 인력 중. 이것은 히스기야서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다윗과 솔로몬이 행한 일을 행합니다. 그는 필요한 모든 기여를 하고, 모든 행정을 담당합니다. 이제 성전은 타협 없이 솔로몬 시대에 있어야 했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모든 좋은 일들 후에 우리는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야기, 즉 701년 산헤립의 공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좋은 일이 있는 후에 산헤립은 이 모든 것을 파멸시킬 자로서 멸망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장의 처음 23절은 열왕기의 약 세 장에 관련되어 있고 이사야서에서 반복되는 모든 내용을 매우 축약된 방식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즉, 포위당할 때 히스기야가 물을 준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앗수르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그가 마련한 조항들과 특히 하나님을 신뢰한 방식이 그를 그렇게 신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는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성벽으로 와서 침략군이 항상 하는 일을 했는지, 포위된 도시의 시민들에게 그들이 항복해야 한다고 설득하려고

했는지, 그들이 항복한다면 항복해야 하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들의 매혹적인 군대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이고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평화가 될 것입니다. 정복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서 조롱하던 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아무런 방어 수단도 없이 남겨졌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랍사가 의 글자를 가져다가 성전에 있는 그룹들 앞에 가져다가 펴면서 가로되 주여 이 글자도 보시며 이 모든 위협도 보시는도다

그리고 물론, 열왕기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룻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앗수르 군대 185,000명을 죽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예루살렘 도시를 포로로 잡는 것을 막았던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로로 잡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고, 산헤립 자신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포로로 잡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테일러 프리즘(Taylor Prism)이나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앗수르 연대기 중 하나에 대한 기록에서 산헤립은 어떻게 유다 지방에서 포로 20만 명을 사로잡았으며 모든 요새 도시를 정복했는지 자랑합니다. 히스기야를 그의 수도 예루살렘에 새처럼 가두어 두었습니다. 물론 아시리아인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기 때문에 산헤립은 결코 자신의 연대기에서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로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방으로 번창했고, 사실상 아시리아 국가보다 오래 지속되었으며 바빌로니아 시대까지 존속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산헤립은 실제로 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아시리아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연대기 기자는 단지 히스기야가 신실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신실함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보존하셨다고만 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시련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연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충실했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일을 암시합니다.

이제 열왕기의 이야기는 두 개의 단편소설로 마무리됩니다. 이 두 단편소설은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연대순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공물을 보내고 그 당시 아시리아에 맞서 바빌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히스기야의 동맹을 구한 므로닥발라단에 대한 역사적 언급을 통해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산헤립 이전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자기가 죽을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유예를 주셨고 당신의 수명이 15년 더해지게 될 것이며 이것으로 당신이 받게 될 표징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아하스와 대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스는 선지자를 통해 표적을 제시하자 “나는 아무 표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표적을 구하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라면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여기서 그의 전임자 아하스와 완전히 대조됩니다. 그 표시는 아하스의 다이얼에서 그림자의 움직임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숫자가 무엇이든 15도, 15단계로 그림자가 뒤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은 없으며 이 현상, 이 표시가 정확히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히스기야가 여기서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므로닥발라단과 히스기야가 므로닥발라단의 사자들을 목인했던 사절단의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엄중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시험을 받는 일에 있어서 그가 충실함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를 표현하는 참되고 적절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의 이야기는 므로닥발라단의 기록으로 끝나지만, 몇 년 후에 발생한 산헤립의 공격과 관련된 결론은 히스기야가 므로닥발라단의 공격을 받지 않았음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 입니다. 그 실패가 그의 인생에서 패배가 되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때부터 그는 신실해졌는데, 특히 산헤립의 공격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그의 신실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열왕기는 히스기야가 역사상 가장 충실한 왕이었다고 말했고, 역대기는 그렇습니다. 그는 역대 가장 충실한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행한 일을 보십시오. 그분은 유월절을 회복하셨고, 성전을 회복하셨으며, 산헤립에게 이 큰 시험이 닥쳤을 때 그는 신실함을 보였으며 이 다른 문제에서도 그는 자신을 낮추고 신실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신실한 왕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실하다는 것은 실패가 없다는 뜻이 아니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실패하고, 방심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을 합니다.

문제는 실패했을 때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 모두 요점은 동일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실패는 그를 특징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당신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시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당신이 이 실패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기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메러디스 발라단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의 히스기야와 역대기의 히스기야는 그가 신실하였기 때문에 기억됩니다. 그것이 그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야망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실함이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23회, 신실한 왕입니다.